

아토피 시달리는 중·고생...광주 전국 두번째

청소년 건강조사...광주·전남 알레르기질환 늘어

비만은 두배 증가...음주·흡연 줄고 스트레스도 감소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의 알레르기 비염·아토피 진단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을 받은 광주 중·고교생 비율은 2007년 28.8%(4076명)에서 지난해 34.5%(2441명)로 10년 만에 5.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중·고교생은 2007년 23.

1%(3661명)에서 지난해 31.7%(2583명)으로 8.6%포인트나 늘어났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난해 기준 전남 중·고교생의 비염 진단율은 16번째, 광주는 7번째로 타시·도 대비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중·고교생으로 따져봤을 때 24.5%(7만4698명)에서 35.8%(6만2276명)로 10년 만에 11.5%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광주 중·고교생의 아토피 피부염 의사진단율은 2007년 17.8%(4076명)에서 지난해 26.6%(2441명)으로 8.8%포인트 증가했다. 전남도 2007년 16.6%

(3661명)에서 지난해 22.9%(2583명)로 6.3%포인트 늘었다.

특히 광주 중·고교생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 비율은 대구(2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다행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전국 평균은 25.1%(6만2276명)으로, 2007년 17.3%(7만4698명)에 비해 7.8%포인트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의 비만율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2007년 광주 중·고교생의 비만율은 6.9%에서 2017년 13%로, 전남은 2007년 7.0%에서 2017년 14.0%로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의 음주율과 흡연율은 10년 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2017년 광주 중·고교생의 현재 음주율은 15.3%, 전남은 15.2%로 조사됐다. 10

년 전에는 각각 24.9%, 26.8%였다. 2017년 흡연율(광주 7.1%, 전남 8.0%)도 2007년(광주 13.2%, 전남 12.5%)에 비해 줄었다.

최종 12개월 동안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중·고교생의 비율(우울감 경험률)은 광주 24.5%, 전남 23.1%였다. 10년 전에는 광주 43.2%, 전남 42.1%였다. 지난해 기준 정상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광주 중·고교생의 비율(스트레스 인지율)도 37.6%로, 2007년(47.4%)에 비해 9.8%포인트 감소했다. 전남도 2007년 39.9%에서 지난해 27.4%로 12.5%포인트 줄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파란 하늘 다시 돌려주세요”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하늘색을 돌려주세요'를 주제로 화분을 들어 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로스쿨 10명중 8명 변호사 합격

25곳 중 16위...연세대 1위·원광대 최하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1명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는 79.8%의 누적 합격률을 보이며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중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제1회~제7회 변호사 시험 학교별 누적 합격률을 공개하면서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이 83.1%였다”고 밝혔다.

학교별 합격률 공개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7회 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94.02%였다. 졸업생 100명 중 94명이 변호사가 됐다는 의미다. 서울대가 93.53%를 뒤를 이었고 고려대는 92.39%였다. 전남대는 합격률 79.8%로 전국 16위에 머물렀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 등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일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를 1599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시험 응시자 3240명의 49.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시아 인권운동가 내달 광주선언문 선포

16~17일 아시아인권연맹 20주년 행사...보조헌장 발표도

5·18기념재단과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이 아시아인권연맹 선포 20주년을 맞아 다음달 광주에서 ‘광주선언문’을 발표한다.

5·18재단은 “다음 달 16~17일 광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인권연맹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광주선언문을 채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수실 파쿠렌, 아달루 라만 칸, 스텔라 프라파 등 아시아인권연맹 보조헌장 초안작성을 담당했던 기초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사 헨틀리(고 헨틀리 목사 부인), 바바라 피터슨(고 피터슨 목사 부인) 여사, 설갑수

광주 디자이너(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영역) 집필자 등 특별 초청자들이 함께한다.

바실 페르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장이 16일 개최식 포럼 기조 발표자로 나서 광주선언문 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광주선언문은 민주·인권·평화로 대표되는 1980년 5월 광주항쟁 정신이 오늘날 아시아 인권활동에 기여한 점을 담는다.

아시아 각국 인권활동가들은 아시아인권연맹 보조헌장도 함께 발표한다. 3개 헌장으로 구성된 보조헌장은 정의권·문화권·평화권 등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1 달뜨기 12:07
 해질 19:11 달지기 01:32

반가운 봄비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하루

◇지역별 날씨(℃)

광주	14/18	보성	12/14
목포	14/18	순천	13/15
여수	12/14	영광	15/18
나주	14/17	진도	15/18
완도	13/16	전주	14/18
구례	13/16	군산	13/16
강진	13/15	남원	13/16
해남	14/16	홍산도	12/15
장성	14/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동~남동	0.5~1.5	남동~남	0.5~1.0
남부	남해	남동~남	1.0~2.5	남동~남	1.0~2.5
남해	남해	동~남동	0.5~2.0	남동~남	0.5~2.0
서부	남해	동~남동	1.5~2.5	남동~남	1.5~2.5
남해	남해	동~남동	2.0~3.0	남동~남	2.0~3.0

◇생활지수

낮음	☀
낮음	☁
낮음	☁
중음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07	07:53
		13:13	20:06
여수		09:00	02:37
		21:19	15:11

◇주간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	☀	☀	☀	☀	☀	☀
15/18	9/21	9/21	11/20	10/25	12/25	12/24

전남 안전시설물 13% '안전 미흡'

국가안전대진단...1590곳 보수·보강 필요

교량·저수지 등 전남지역 시설물 8곳 중 1곳(13%)은 안전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2월5일~4월13일) 기간 전남지역 2만120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 중 7.5%인 1590곳에서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교량이 30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요양시설 229곳, 저수지 160곳, 숙박 시설 145곳 등이었다.

1507곳은 보수·보강이, 83곳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했다. 이밖에 1169곳(5.5%)은 가벼운 지적사항이 나와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현장 조치까지 포함하면 13%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상태가 양호한 곳은 1만8442곳(87.0%)이었다.

전남도는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소요 예산은 모두 2434억원에 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평양과기대 총장 전남대 방문

농생명·치의학 등 협력 모색...평양에 복합농업단지 조성 논의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20일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전남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전남대에서 정병석 전남대 총장과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 총장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대학은 농생명,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업 협력사업의 하나로 신기술 복합농업단지를 평양에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복합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인도적 지원

원을 넘어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전 총장은 전남대가 북한의 열악한 농생명, 치의학, 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대는 국내 유일 북한농업연구소를 신설,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 북한 주민 영양 개선, 산림자원 생산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99KW 설치기준
자세한 문장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wpower.co.kr

민음과신뢰의 100년 기업
www.kwpower.co.kr

제주도

임야/토지 매입 (전,답도가능)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99KW * 350기)

태양광발전소분양

- 제주 한림읍 1차 99KW (잔여분) 분양완료
- 제주 한림읍 2차 99KW (잔여분) 83기
- 강원 영월군 1차 500KW (잔여분) 3기
- 강원 영월군 1차 99KW (잔여분) 2기
- 충남 천안시 1차 99KW (잔여분) 1기
- 충북 제천시 3차 99KW (잔여분) 4기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일시: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국도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

◆◆예약접수 선착순 100명◆◆

태양광 사업 부지 (14만8천평)

제주 아덴빌 리조트

캐슬렉스제주CC

아덴빌CC

제주신화월드

제주국제학교

제주시 한림읍 음악리 산23번지 외 11필지

제주공항에서 24KM

관방단지에서 17KM

중문관광단지

(총 148,260평)

태양광 설치 후 집중지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30년내에 폭풍, 싱가플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발전 가능성

주변 7개 골프장 운영 및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입 개발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중간지점 위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 안전과의 거리로 인한 안전성

월수익 약 270만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제 2013-10-013032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www.kwpower.co.kr

KYUNGWONPOWER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64(만촌동 1331-8)

상시 방문 상담 가능

T) 1644-4192

H) 010-5110-5660